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 추진...지역 경제 촉각

광주지역 주요 생산시설 중 하나인 롯데칠성 광주공장의 폐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타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동계와 정지권은 “일반적인 기업의 철수로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며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칠성음료가 광주 공장의 폐쇄를 추진하며 임직원들에게 원거리 전환 배치 등을 통보했다.

현재 롯데칠성 광주공장에서는 1개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있으며,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포함해 공장과 연계된 물류, 영업, 영업 등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롯데칠성 광주공장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20여명의 임직원은 호소문을 통해 “(이번 폐쇄 논의는) 단순한 공장 구조조정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의 삶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폐쇄 논의로 인해 직원들은 퇴사 대신 약 300km 떨어진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동 배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며 “회사가 제시한 300km 이상 떨어진 타 지역 공장으로의 전환 배치는 생활 터전을 버리라는 것으로 사실



롯데칠성 광주공장 전경

타 지역 생산시설 통합·이전 검토...임직원 “사실상 해고”
전진숙 “도미노 현상 가속화 불가피...상생의 지혜 필요”

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광주공장은 롯데칠성음료의 기술·제품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핵심 거점으로 이 기능은 단순한 생산량 지표로는 평가하기 어렵고 한 번 사라지면 쉽게 복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공장 폐쇄가 미래 지역 경제·청년들에게도 구조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대기업 제조 공장 하나의 폐쇄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지역이 꿈꿀 수 있는 대기업 일자리의 소멸,

지역에 남아 일할 이유의 상실, 청년 인구 유출 가속이라는 구조적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광주공장은 그 자체로 지역과 대거를 잇는 상징적인 고용 거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장기간의 협의나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중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과 쌓아온 신뢰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회사에 대한 재검토·중재 요청, 광주시 및 관계 기관과의 공론화,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 및 관심을 간곡

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984년 10월 문을 연 롯데칠성 광주공장은 신제품 파일럿 생산과 초기 품질 안정화, 시장 반응에 따른 소량·신속 생산 조정 등 대형 공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맡아왔다.

이를 배경으로 광주지역 음료 제조업의 기술 기반을 유지해 왔으며, 생산과 연계된 물류·영업·영업 인력까지 포함하면 200여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를 창출해 지역과 대거를 잇는 상징적 고용 거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롯데칠성이 클라우드, 크

리스 드래프트 맥주 생산을 중단하고 설비 재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장 기능 축소를 넘어 폐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한 번 ‘탈 광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롯데그룹 임원, 노조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광주공장 폐쇄 계획과 함께 사측이 임직원 원거리 전환 배치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공장 폐쇄는 단순히 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 경제의 큰 축인 대기업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대·중·소 상생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장 폐쇄는 지역 내 대기업 엑시트와 도미노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과 지역 이익의 ‘상충’이 아닌 상생의 정책 방향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기업의 논리와 지역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노사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금호타이어, 윤리경영 선포식
함평신공장 부지서 실천 약속

금호타이어가 지난 22일 함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갖고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윤리 준범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통한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경영기획본부 임완주 전무, 안전생산혁신본부 황호길 전무, 함평공장 건설단 정영모 상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함평과 폴란드의 신공장 건설공사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와 함께 실시됐으며, 행사에는 임직원을 대표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가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경영진들과 함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금호타이어의 윤리경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전사적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며 “금호타이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함평과 폴란드에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기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건설 속도 낸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시공 파트너사로 본격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3일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공사비는 2조6400억원이며, 한화오션 계약금액은 1조9716억원, 현대건설은 6684억원이다. 한화오션은 주요 인허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개발 전반을 주관해 왔으며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SK이터너스가 주주로 참여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기관으로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선정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가 자본출자와 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5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PF는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한화오션은 예상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저케이블, 하부 구조물 제작, 해상 설치 등 핵심 공급망에 국내 기업을 협력사로 선정한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해상 풍력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조감도.

한화오션·현대건설 등 2조6400억원 규모 계약 체결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본궤도...탄소 중립 실현도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터빈 공금 및 설치를 제외한 하부 기초구조물 제작·설치, 총연장 32.5km의 해저 케이블 포설, 해상 변전소 및 육상 모니터링 하우스 건설 등 전 공정을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약 3년으로 오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착공을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도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시장은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인프라 및 금융 조달 문제로 올해 기준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지난해 누적 준공 기준 83GW에서 2034년 441GW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설계부터 시공·설치, 운영까지 아우르는 해양 신재생 사업 일괄도급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해양에너지, 다화용기 제작 지원...ESG경영 실천

㈜해양에너지는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다화용기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제기된 일회용품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해양에너지는 광주광역시자원센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다화용기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후원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만민기금과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마련됐다. 후원

금 전액은 다화용기 제작에 사용된다.

제작된 다화용기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식음매장에서 활용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세척·관리 등 운영 과정에는 자활사업단원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기아챔피언스필드에 서 다화용기 전환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해양에너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새로운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위어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트코리아> 공저자

광남일보